

先秦諸家の《詩經》引用 特色

李 塚 文*

◁ 目次 ▷

- | | |
|---------------------|----------------|
| I. 緒論 | 2. 同一 詩句의 變化運用 |
| II. 先秦諸家の 《詩經》引用 概況 | 3. 引用의 效果 |
| III. 《詩經》 引用上의 特色 | IV. 結論 |
| 1. 斷章取義 | |
-

I. 緒論

《詩經》은 中國最古의 詩歌集으로 西周初(B.C. 1100年 前後)부터 春秋中葉(B.C. 600年 前後)까지 약 500년간에 지어진 民間歌謠와 士大夫들의 作品 및 王室의 宴會·儀式이나 宗廟에서 祭祀지낼 때 부르던 노래의 歌詞들을 후세 사람이 整理하여 編纂한 것이다. 그런데 先秦諸家の 典籍에는 《詩經》의 詩句를 인용한 例가 많다. 이것은 《詩經》이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유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孔子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不學詩, 無以言.-季氏篇-)1)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陽貨篇-)2)

라고 한 것으로 보아, 《詩經》은 이미 言語 教科書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

* 光州女大 東洋語文學科 助教授

1) 《論語》, 十三經注疏本, 臺灣 藝文印書館, 1993年, 8-150上(8은 卷8을, 150은 150쪽을, 上은 위쪽을 나타냄. 以下同).

2) 《論語》, 앞의 책, 8-156上.

시경 3백편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전대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子路篇-)3)

라고 하여, 政治·外交上에서 자신의 뜻을 表出해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시는 일으킬 수 있으며, 살필 수 있으며, 무리를 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邇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陽貨篇-)4)

라고 하여, 溫柔敦厚한 詩敎로써 미풍양속을 기르고, 人倫을 敦篤히 할뿐만 아니라 그 작용이 사회 속에서 인류를 단결시키고 불만을 토로해내는데 까지 그 效用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當時의 사람들에게 《詩經》은 어떤 존재이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은 先秦諸家들이 남겨놓은 典籍에서 그들이 인용한 《詩經》의 詩句를 研究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필자는 특히 先秦諸家の 《詩經》引用에 나타난 特色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II. 先秦諸家の 《詩經》引用 概況

春秋以前에 《詩經》은 周代의 樂章으로 祭祀·宴饗儀式에서 樂의 일부분이었다. 《詩經》의 원래 용도는 樂章의 歌詞로 사용된 것이다.

春秋時代에 이르러 各國間에는 外交使節의 來往이 빈번해지고, 宴饗의 禮樂이 貴族間에 交際의 주요한 方式이 되었다. 이러한 典禮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專對能力이었다. 이리하여 禮樂節次 이외에 賦詩나 引詩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詩文은 交際에서의 언어적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때 詩를 引用하는 方法도 《詩經》中の 片語 單詞의 뜻을 취하거나, 比喻로 引用하기 시작하였다.

戰國時代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音樂이 유행하여 雅頌이 그 지위를 잃는 현상이

3) 《論語》, 앞의 책, 8-16上.

4) 《論語》, 앞의 책, 8-156上.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周樂은 점차 亡失되어 賦詩의 기풍은 사라지고, 詩의 章이나 句로써 자신의 뜻을 말하는 引詩의 기풍이 일어났다. 이 때부터 諸子들은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詩經》을 引用하기 시작한 것이다.

夏傳才는 1) 三百篇은 春秋時代에 이미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응용범위는 이미 본래의 제작 목적에서 벗어나 政治 外交 場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고, 2) 많은 詩句는 音樂과 분리되어 사람들의 담화중에 직접 사용되어 언어의 문체를 아름답게 하고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였다. 3) 賦詩와 引詩는 반드시 全詩의 原意와는 상관없이 斷章取義의 방법으로 한 首 중의 一章 혹은 一句, 兩句의 뜻을 적취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4) 당시 유행하던 시는 이미 典禮 政治 外交 言語의 美化 등 실제 효용적 가치를 지니게 되자, 貴族 士大夫들은 이를 학습 교재로 사용하였다.⁵⁾라고 하여 《詩經》이 春秋時代에 어떻게 應用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Ⅲ. 《詩經》 引用上의 特色

1. 斷章取義

春秋부터 戰國에 이르기까지 “斷章取義”로 引詩하는 氣風이 유행했었다. 이러한 斷章取義에 대해 孟子는 詩를 말하는 자는 개별 文字로써 詞句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개별 語句로써 作品의 본의를 오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故說詩者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是以得之.(萬章上)). 즉 “以文害辭”와 “以辭害志”는 모두 斷章取義로 “以意逆志”함으로써 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孟子가 당시 유행하던 斷章取義에 반대하여 “以意逆志”를 주장하여 詩 全篇의 主題로써 詩句를 이해해야 됨을 강조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以意逆志”를 위해서는 반드시 “知人論世”가 기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5) 一、三百篇在春秋時期已廣泛流傳，其應用範圍已超越其本來制作的目的，成爲政治外交場合表情達意的一種普遍應用的特殊工具；二、許多詩句離開了音樂，雜用到人們直接交往的談話中，從而逐漸豐富了語言的文彩和表現力；三、賦詩和引詩不一定符合全詩原意，而大多是採取斷章取義的方法，即採用一首詩中一章或一句兩句的形象和意義，按照賦者和引者所要表達的意思來運用它們；四是作爲貴族學習的教材，當時流行的詩，既有典禮政治外交美化語言等實際效用，貴族士大夫不能不學習掌握它們。夏傳才，《詩經研究史概要》，中州書畫社，1982年，32쪽 인용

기도 하였다. 즉 단지 文字 자체만 보아서는 안되고 作者의 사람됨과 그 事蹟까지도 살펴서 考察하여야만 정확한 結論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당시 斷章取義가 유행하였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中庸》에서 孔子가 舜임금의 費·隱에 대해 설명하면서 〈大雅·假樂〉篇 제1장을 인용하였다.

假樂君子,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님은,
顯顯令德.	아름다운 덕이 밝고 밝네.
宜民宜人.	백성이나 관리들을 적절히 하시니,
受祿于天.	하늘에서 복을 받으셨네.
保右命之.	보호하고 돕고 명을 내리시어
自天申之.	하늘로부터 은총 거듭하네.

이 시는 成王의 恩德을 기린 것이다. 그런데 《中庸》에서는 斷章取義하여 「成王의 恩德」을 「舜임금의 德」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中庸》에 인용된 시구는 거의가 斷章取義한 것으로 詩의 本意로 인용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中庸》의 著者が 그만큼 詩에 대하여 깊은 造詣가 있고 詩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春秋左傳》卷十四 成公 十二年에서 〈周南·兔置〉篇 제1장 말2구와 제3장 말2구를 인용하여 狀況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다.

① 赳赳武夫,	능름한 군인은
公侯干城.	나라의 방패.
② 赳赳武夫,	능름한 군인은,
公侯腹心.	임금님과 한마음.

이 시는 능름한 軍人을 讚美한 것이다. 《春秋左傳》에서는 쑤나라 郤至가 楚나라 子反과 나는 대화에서 인용한 것이다. ①은 세상이 편안해지면 諸侯는 백성을 지키는 방패와 城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②는 세상이 어지러우면 諸侯들이 욕심을 부리어 용감한 武士들을 손아귀에 넣어 자기 자신만을 爲하는 心腹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인용되었다⁶⁾.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詩句를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맞게

6) 共儉以行禮，而慈惠以布政，政以禮成。——故詩曰：「赳赳武夫，公侯干城。」及其亂也，諸侯貪冒，侵欲不息，爭奪常以盡其民，略其武夫，以爲己腹心股肱爪牙。故詩曰：「赳赳武夫，公侯腹

比喩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 主體와 客體도 ①에서는 '諸侯'가 '干城'이 되고, ②에서는 용감한 '武士'가 '心腹'이 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春秋左傳》卷九 文公 四年條 記錄에 “出姜을 齊나라에서 맞이함에 卿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禮가 아니었다. 君子는 이 일로 出姜이 魯나라에서 끝이 좋지 않을 것임을 예견했다.”⁷⁾ 그리고 <周頌·我將>篇 제9,10구를 인용한 다음,

畏天之威,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于時保之. 문왕의 유업을 보전하리라.

“이는 부인을 존경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⁸⁾”라고 설명하여 婦人을 존경한 例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은 卿의 禮되지 못한 行動을 評한 것이다. 원래 詩의 內容은 하늘의 威嚴을 두려워하며 文王의 遺業을 保全한 成王을 기린 내용인데, 이곳에서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부인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斷章取義한 것이다.

《孟子》滕文公上에서는 農家の 일파인 許行이 楚나라에서 滕나라로 가서 군주께서 仁政을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자, 文公이 그에게 거처할 곳을 주니, 그 무리 수십 명이 모두 갈옷을 입고는 신을 만들고 자리를 짜서, 팔아 糧食을 마련하였다. 陳良의 門徒인 陳相이 그 아우 辛과 함께 宋나라에서 滕나라로 와서, 許行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동안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에게 배웠다. 陳相이 孟子를 보고서 許行의 가르침을 傳하자, 그의 말을 반박하면서 <魯頌·閟宮>篇 제5장 제7,8구를 인용한 뒤,

戎狄是膺, 오랑캐들 무찌르고,
荊舒是懲. 남쪽 나라들을 징계하다.

“周公도 바야흐로 이들을 응징하셨거늘, 그대는 이것을 배우니, 또한 잘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이 詩句는 魯나라 僖公이 齊나라에 빼앗겼던 옛 땅을 되찾고 훌륭한 정치를 베푼 '僖公'의 武功을 稱頌한 것인데, 스승 陳良을 버리고 許行을 따른 陳相을 꾸짖고 있다. 여기서 '僖公'을 '周公'이라고 말한 것은 斷章取義

心。」天下有道，則公侯能爲民干城，而制其腹心，亂則反之。《春秋左傳》，十三經注疏本，臺灣 藝文印書館，1993年，6-459上，459下。

7) 逆婦姜于齊，卿不行，非禮也。君子是以知出姜之不允於魯也。曰：貴聘而賤逆之，君而卑之，立而廢之，棄信而壞其主，在國必亂，在家必亡，不允宜哉。《春秋左傳》， 앞의 책，6-306上。

8) 詩曰：「畏天之威，于時保之。」敬王之謂也。《春秋左傳》， 앞의 책，6-306上。

된 것이다. 사실 《孟子》에 인용된 《詩經》 詩句를 관찰해 보면, 자신이 주장한 “以意逆志”, “知人論世”의 원칙을 위배하여 “斷章取義”하고 있다.⁹⁾

2. 同一 詩句의 變化運用

同一 詩句의 變化運用이라 함은 같은 詩篇의 詩句가 引用한 사람에 따라 그 引用 內容이나 引用 方法을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先秦時代에 《詩經》이 인용되면서 어떤 形態로 引用되고 있는지, 즉 本義로 인용되고 있는지 또는 旁義로 引用되고 있는지를 가장 克明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同一한 詩句가 引用된 狀況에 따라서 또는 引用된 目的에 따라서 달리 運用된다는 것은, 그 당시 《詩經》 引用의 實際를 잘 나타내리라 생각한다. 그 特徵의인 例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荀子》 解蔽篇과 《左氏傳》 卷十六 襄公 十五年條에서 인용된 同一 詩句는 〈周南·卷耳〉篇 제1장 말2구로, 헤어진 님 생각에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嗟我懷人，아아 내 그리운 님 생각에,
寘彼周行，바구니조차 한 길 위에 내던지네.

《荀子》에서는 바구니는 채우기 쉬운 것이요 도꼬마리는 혼한 것이지만, 그것을 채우려면 마음이 임 생각으로 갈려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갈리면 사물을 똑바로 알 수 없고,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사물에 밝게 통할 수 없으며,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의혹에 빠지게 됨¹⁰⁾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左氏傳》 卷十六 襄公 十五年條에서는 楚나라가 인재를 등용함에 공정하고 적절하였기 때문에 君子가 이 일을 칭찬하여 “좋은 사람을 周나라 길에 동참케 한다.”는 뜻으로 인용하고, 관직에 사람을 잘 인용함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懷人」을 신분에 알맞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周行」을 周나라 官人의 班列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詩에서는 “님 생각에 바구니를 周나라 한 길에 던진다.”는 뜻을, 이곳에서는 신분에

9) 예컨대 “彼君子兮，不素餐兮.”(盡心上) 句와 〈小弁〉, 〈凱風〉(告子下)篇 詩의 해석이 그것이다. 朱碧蓮, 〈略論孟子的文學觀〉, 麗水師專學報 1983年第1期, pp 81~83 참조.

10) “頃筐易滿也，卷耳易得也，然而不可以貳周行。故曰：心枝則無知，傾則不精，貳則疑惑。”《荀子》,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6年, 2-265(2는 卷2를, 265는 265쪽을 나타냄. 以下同.)

맞는 人才을 周나라 官人의 反열에 登用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禮記》 坊記篇과 《左氏傳》 卷八 僖公 三十三年條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邶風·谷風〉篇 제1장 제5,6구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옛 생각을 읊은 것이다.

采葑采菲, 순무나 무를 캐은,
無以下體. 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禮記》에서는 순무나 무를 뽑을 때에도 그 뿌리만 취하고 잎사귀를 남긴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임금의 성덕이 멀리 전파되어 윗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죽을 줄 안다는 뜻으로, 군자는 이익을 취할 때 전부를 취하지 않고 일부분을 남긴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左氏傳》에서는 白季가 冀 땅을 지나다가, 卻缺을 만나 데리고 돌아가 文公에게 登用하기를 권하면서, 비록 그의 아버지가 罪를 지었지만 그 벌을 兄弟 子息에게까지 주지는 않는 것과 같이 本人의 節操만을 취하면 되지 그 뿌리까지 따질 필요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禮記》에서는 이익의 한 부분으로, 《左氏傳》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孟子》 萬章上과 《禮記》 孔子閑居篇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齊風·南山〉篇 제3장 제3,4구로, 魯나라 桓公에게 출가한 文姜과 간음한 齊나라 襄公을 諷刺한 詩이다.

取妻如何何, 장가를 들려면 어떻게 하지,
必告父母. 반드시 부모님께 고해야지.

《禮記》에서는 이 시구를 인용해 禮로써 백성들의 음란한 것을 막고 분별을 밝히고 혐의가 없게 하여 백성들의 紀綱으로 삼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孟子》에서는 萬章이 《詩經》 詩句를 引用하여 '장가들려면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舜임금은 父母에게 아뢰지 않고 結婚한 理由를 孟子에게 묻자, 孟子는 '父母에게 아뢰었다면 장가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父母에게 告하면 사람의 큰 倫理를 폐지하여 父母를 원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뢰지 않으신 것이다.'고 하였다. 《孟子》에서는 舜임금의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見解를 피력하였다. 즉, 詩 본래의 내용과는 반대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孟子》와 《禮記》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比喻를 하고 있는 것이다. 《孟子》에서는 부모에게 고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禮記》에서는 告하

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中庸》과 《國語》 越語下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鬪風·伐柯〉篇 제2장 제 1,2구로, 禮에 따라 이루는 결혼을 노래한 것이다.

伐柯伐柯, 나무베어 도끼자루 만들려면,
其則不遠, 그 본이 가까운데 있는 것을.

《中庸》에서는 孔子가 道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구를 인용해 道라는 것은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를 베는 것처럼 그 법이 멀리 있지 않음을 比喻적으로 表現하신 것이다. 반면에 《國語》 越語下에서는 越王 句踐과 范蠡와의 對話에서 范蠡가 時機의 利用과 天道의 循環을 설명하면서 작은 災殃은 가까이 있고 큰 재앙도 일정한 시기를 두고 일어나는데, 會稽에서의 恥辱을 상기시키면서 天道의 災殃은 멀리 있지 않음을 比喻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는 吳나라의 禍의요청을 받아들여려는 句踐의 생각을 제지하고 吳나라를 멸망시켰다.

《荀子》 正論篇과 《左氏傳》卷六 僖公 十五年條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小雅·十月之交〉篇 제7장 말4구로, 백성들이 받는 죄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 아니라 소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기 때문임을 나타낸 것이다.

下民之孽, 백성들의 받는 죄는,
匪降自天, 하늘로 부터 내려진 것이 아니라,
噂沓背憎, 모이면 합쳐지고 헤어지면 미워함을,
職競由人, 사람들이 다투어 힘쓰기 때문이라.

《荀子》에서는 世俗의 論客들이 “堯임금과 舜임금도 백성을 교화할 수가 없었다.”고 한 말에 대해 “堯임금과 舜임금이 天下에서 가장 교화를 잘하는 분임”을 설명하고 이 시구를 인용해 쓸데없이 떠드는 世俗의 論客들을 꾸짖은 것이다. 《左氏傳》에서는 晉나라 惠公이 秦나라에 인질로 있으면서 “前代 君主께서 史蘇의 占을 좇으시었다면, 내 신세가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그를 옆에서 모시고 있던 韓簡이 “만물은 나서 모양이 생기고, 모양이 생긴 뒤에 크고 많아지며, 크고 많아져서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前代 君主가 행한 惡德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하고, 이 시구를 인용해 모든 災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比喻해 설명한 것이다.

《呂氏春秋》有始覽第一 務本과 《孟子》滕文公上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小雅·大田〉篇 제3장 첫4구로, 豊年을 감사드리는 祭祀를 올리면서 公田을 먼저 생각하고 私田을 뒤로 미루는 백성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雨我公田, 공전을 적시고,
遂及我私, 사전도 적시네.

《呂氏春秋》에서는 三王을 보필한 사람들의 功績을 설명하고, 이 시구를 인용해 三王을 보필한 이들은 모두 公의인 일을 행함으로써 私의인 일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반면에 《孟子》에서는 滕文公이 나라 다스림에 대해 묻자, 孟子가 稅法에 대해서 설명하고 滕나라에 助法施行을 권하면서, 이 시구를 인용하여 公田이라는 것은 오직 助法에만 있으므로 周나라도 助法을 사용했었다는 증거로 밝힌 것이다.

《左氏傳》卷二十七 昭公 二十八年條와 《禮記》樂論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大雅·皇矣〉篇 제4장 말10구로, 周나라 文王들을 稱頌한 것이다.

貊其德音, 그의 명성이 크심을 알고,
其德克明, 그의 덕이 밝으심을 아셨네.
克明克類, 밝히고 선하게 하시며,
克長克君, 어른 노릇 임금 노릇 하실 자질 지니셨으니.
王此大邦, 이 큰 나라의 임금님 되서,
克順克比, 백성들 뜻 좇아 친화하게 되셨네.
比于文王, 문왕에 이르러,
其德靡悔, 그 덕에 후 없으시니,
既受帝祉, 이미 받으신 하느님의 복이,
施于孫子, 자손들에게까지도 뻗게 되었네.

《左氏傳》에서는 魏獻子の 인재등용을 武王의 인재등용에 比喻해, 인재등용의 정당성과 그의 德을 칭송한 것인데, 《禮記》에서는 魏文侯가 子夏에게 樂과 音에 대해 묻자, 이 시구를 인용하여 '樂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즉 "聖인이 父子, 君臣의 道를 만들어서 紀綱이 바르게 선 뒤에 天下가 크게 안정된 年後에 6律을 바르게 하고, 5聲을 和하게 하여 詩頌을 弦歌하였으니, 이것을 德音이라고 하며, 德音을 樂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禮記》祭義篇과 《孟子》公孫丑上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大雅·文王有聲

〉篇 제6장 제2,3,4구로, 文王과 武王의 王道政治가 이루어져 사방 백성들이 복종해 오지 않음이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自西自東,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自南自北,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無思不服, 복종치 않는 사람이 없다.

《禮記》에서는 孝道는 天下의 큰 줄기이어서, 孝道는 세우면 하늘과 땅에 가득 차고, 그것을 뉘어놓으면 四海로 번지고, 그것을 後世에 베풀면 아침저녁 없이 항상 뿔뿔해서 그것을 미루어 사방에 보내어도 다 標準이 되어서, 어느 누구라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나타낸 것인데, 《孟子》에서는 文王처럼 王道政治가 이루어져 德으로써 남을 服從시키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와 服從하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禮記》에서는 “四方”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孟子》에서는 「服從」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中庸》, 《荀子》 堯問篇, 《晏子春秋》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大雅·烝民〉篇 제4장 제5,6구로, 宣王의 命으로 仲山甫가 齊나라로 城을 쌓으러 갈 때 吉甫가 이 시를 노래하며 餞送한 것이다.

既明且哲, 밝고도 어질게,
以保其身, 그의 몸을 보전하네.

《中庸》에서는 聖人の 偉大하신 道를 설명한 것이다. 즉 “既明且哲”句에 비중을 두어 설명되어진 것이다. 《荀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孫卿은 孔子만 못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 荀子の 弟子들이 이 말을 反駁하면서, 荀子는 비록 가슴에 품고 있는 뜻은 위대하고 理想은 높았지만, 오히려 미치광이 모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는 혼란한 세상에 몸을 보존하는 智慧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以保其身”句에 더 비중이 두어져 설명되어지고 있다.

《左氏傳》卷九 文公 三年條와 《左氏傳》卷十八 襄公 二十五年條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大雅·烝民〉篇 제4장 말2구로, 仲山甫의 德을 찬양한 것이다.

夙夜匪解, 일찍부터 늦게까지,
以事一人, 꾸준히 임금님을 섬기네.

文公 三年條에서는 신하노릇을 함에 있어 자기의 할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고 언제나 일에 대해서 아주 근신하고 깊이 생각하는 孟明을 仲山甫에 비유하여 稱贊한 것이다. 襄公 二十五年條에서는 衛나라 獻公이 夷儀로부터 使者를 보내어 甯喜에게 자기를 도우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니, 甯喜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大叔文子는 이 소식을 듣고, 甯喜를 꾸짖고, 뒷날이 좋지 않을 것임을 豫見한 것이다.

《國語》 晉語四와 《荀子》 王制篇에서 인용된 同一詩句는 〈周頌·天作〉篇 제 1,2구로, 太王을 祭祀하는 노래이다.

天作高山,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드셨는데,
大王荒之, 태왕께서 그것을 다스리셨네.

《國語》에서는 宋 襄公이 宋나라에 와 있던 晉나라 重耳를 도와줄 수 없게되자, 鄭나라로 갔다. 그런데 重耳를 禮를 갖추어서 접대하지 않았다. 鄭나라의 大夫 叔詹이 鄭 文公에게 重耳를 禮로써 접대하고, 도와 줄 것을 설득한 것이다. 《荀子》에서는 王者의 經濟的 法則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經濟的 流通構造가 잡혀지면 온 백성이 다 풍족하게 되어, 천하의 다스림이 극치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3. 引用의 效果

引用의 效果라 함은 어떤 狀況에서 어떤 目的을 위하여 引用한 詩句로 인해 소기의 目的을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典籍에서는 그 目的 達成을 表示하지 않고 있지만, 本稿에서는 目的 達成을 表示한 경우를 찾아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戰國策》 東周策에서도 〈小雅·北山〉篇 제2장 첫4구를 인용하여 자신이 周나라 사람임을 證明해 보이고 있다.

溥天之下, 모든 하늘 밑이,
莫非王土, 모두가 임금님의 땅이며,
率土之濱, 모든 땅의 물가까지,
莫非王臣, 모두가 임금님의 신하이네.

衛나라 濫지방 사람이 東周에 왔는데, 東周의 성문지기가 城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게 하였다. 이에 溫지방 사람이 “나는 본래 東周사람이오.”라고 하자, 성문지기가 살고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지 못하고, 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君主가 파견한 東周의 관리가 “본래 東周인이 아니면서도 객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溫지방 사람이 이 시구를 인용해 “天下의 어떤 곳이던 대왕의 국토 아닌 곳이 없고, 그곳에 살고있는 어떤 사람도 대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고 《詩經》에 쓰여 있고, 지금 東周가 천하를 통치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天子의 백성이므로, 객이 아니라 東周人임을 설명하자, 그를 석방시켜주라고 하였다¹¹⁾.

《春秋左傳》 卷二十六 昭公 二十六年條에서 齊나라 하늘에 彗星이 나타나자, 齊나라 君主가 제사지내고 빌어 없애게 했다. 이에 晏子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사지내며 빌어 없애게 하는 일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건 공연히 神을 속이는 일입니다. 天道는 거짓이 없고, 하늘이 내리는 命은 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祭祀지내고 빌어서 없앨 것입니까? 그리고 하늘에 彗星이 나타남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군주께서 더러운 점이 없다면 어찌 祭祀지내고 빌어 없앨 것이며, 君主께서 만일 더러운 점이 있다면 祭祀지내고 빈다고 하더라도 어찌 없어질 것입니까?¹²⁾” 하고, 〈大雅·大明〉篇 제3장을 인용하여 君主를 설득하고 있다.

維此文王,	문왕계신,
小心翼翼,	삼가고 조심하셔,
昭事上帝,	하느님을 밝게 섬기고,
肆懷多福,	많은 복을 누리시니,
厥德不回,	그분의 덕 어긋나지 않아,
以受方國,	나라를 받으시었네.

이 시는 文王의 밝은 德을 기리는 노래인데, 晏子が 文王처럼 君主께서도 잘못된 점이 없고 恭遜한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에게 德을 베풀었다면 四方의 나라가 따를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齊나라 君主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제사지내는 일을 중지시켰다¹³⁾.

11) 溫人之周, 周不納. 客即對曰:「主人也。」問其卷而不知也; 吏因囚之. 君使人問之曰:「子非周人, 而自謂非客, 何也?」對曰:「臣少而誦詩, 詩曰:『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今周君天下, 則我天子之臣; 而又爲客哉? 故曰主人。」君乃使吏出之. 《戰國策》, 欽定四庫全書, 臺灣 中華書局, 1985年, 406-247上(406은 卷406을, 247은 247쪽을, 上은 위쪽을 나타냄. 以下同.)

12) 齊有彗星, 齊侯使禳之. 晏子曰: 無益也, 祗取誣焉. 天道不諂, 不貳其命, 若之何禳之. 且天之有彗也, 以除穢也. 君無穢德, 又何禳焉, 若德之穢, 禳之何損. 《春秋左傳》, 앞의 책, 6-9 05下.

《春秋左傳》卷八 僖公 三十三年條 記錄에 白季가 使者가 되어 冀 땅을 지나다가, 冀의 郤缺이 밭의 잡초를 메고 그의 아내가 밥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다. 夫婦가 서로 恭敬하는 태도가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같이 하였다. 그래서 그는 郤缺을 데리고 돌아가 文公에게 登用하기를 권하였다. 이에 文公은 그의 아버지가 罪를 지었는데 써도 좋을지를 묻자, 白季는 “舜임금이 벌을 줌에 絲을 죽이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絲의 아들인 禹임금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管仲은 齊나라 桓公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도 그를 등용하자, 桓公을 도와 霸者가 되게 하였습니다.14)” 하고, 〈邶風·谷風〉篇 제1장 제5,6구를 인용하였다.

采葑采菲, 순무나 무우를 캐온,
無以下體. 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시는 자기를 버린 남편을 원망하고 옛날의 恩愛를 생각한 것이다. 이 시구는 뿌리만을 보고 잎은 맛이 없다고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아내가 늙었다고 옛날의 좋았던 일까지도 잊어버리고 딴 여자에게 다시 장가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春秋左傳》에서는 白季가 이 시구를 인용하여 登用함에 있어 本人의 志操만을 심사해야지 그 조상까지 따질 필요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文公은 郤缺을 下軍의 大夫로 삼았다15).

《呂氏春秋》 慎行論第二 求人에서는 쯤나라 사람들이 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叔向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곳에 賢者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게 하였다. 鄭나라 子產이 叔向에게 〈鄭風·褰裳〉篇 제2장 4구를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子惠思我,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褰裳涉洧, 치마 걷고 유수라도 건너가리라.
子不我思, 그대가 날 생각 않는다면야,
豈無他士, 세상에 남자가 그대뿐일까.

13) 公說, 乃止. 《春秋左傳》, 앞의 책, 6-905下.

14) 白季使過冀, 見冀缺樹, 其妻饁之. 敬相待如賓, 與之歸, 言諸文公曰: — 君請用之, — 公曰: 其父有罪, 可乎. 對曰: 舜之罪也, 殛鯀, 其舉也, 興禹, 管敬仲桓公之賊也, 實相以濟. 《春秋左傳》, 앞의 책, 6-291上.

15) 君取節焉可也. 文公以爲下軍大夫. 《春秋左傳》, 앞의 책, 6-291上.

이 시는 사랑이 식어 가는 애인을 둔 여인이 남자의 식어 가는 애정을 꾸짖은 것인데, 《呂氏春秋》에서는 子産이 叔向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쑤나라가 鄭나라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옆에 楚나라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叔向이 쑤나라로 돌아가 쑤나라와 楚나라가 鄭나라 가까이 있어 쑤나라가 탄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쑤나라는 鄭나라 征伐을 中止하였다¹⁶⁾.

《春秋左傳》卷二十二 昭公 六年條 記錄에 쑤나라 韓宣子가 楚나라에 갔었을 때, 楚나라 사람이 국경에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쑤나라를 찾아가 楚의 公子 棄疾이 쑤나라의 국경에 닿았으나, 쑤나라 君主 또한 그를 맞이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叔向이 “楚나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禮法에 맞지 않는 행위를 본받으려고 합니까?”하고, 《小雅·角弓》篇 제2장 말2구를 인용하였다.

爾之教矣, 그대가 가르치면,
民胥效矣. 백성들이 따라 본받을 거네.

이 시는 간사한 무리들을 경계하여 꾸짖는 내용인데, 《春秋左傳》에서는 叔向이 쑤나라 君主에게 “楚나라가 비록 잘못하였지만 우리는 禮法을 지켜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해야지, 어찌 타인의 잘못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楚나라 공자를 맞이하도록 陳言하였다. 이 말을 들은 쑤나라 君主는 기뻐하고서, 바로 楚나라 公子 棄疾을 맞이하게 했다.¹⁷⁾

《國語》卷第十 晉語四에서는 重耳가 宋나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宋 襄公이 重耳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公孫固가 襄公에게 重耳의 사람됨을 설명하면서 《商頌·長發》篇 제3장 제3,4구를 인용하였다.

湯降不遲, 탕임금은 꼭 알맞게 나오시어,
聖敬日躋, 성스럽고 공경하는 덕을 날로 높이셨네.

16) 晉人欲功鄭, 令叔向聘焉, 視其有人與無人, 子産爲之詩曰: 「子惠思我, 褰裳涉洧, 子不我思, 豈無他士。」 叔向歸曰: 「鄭有人, 子産在焉, 不可攻也。秦·荆近, 其詩有異心, 不可攻也。」 晉人乃輟攻鄭。《呂氏春秋》, 諸子集成, 北京 中華書局, 1996年, 6-293(6은 卷6을, 293은 293쪽을 나타냄. 以下同.)

17) 韓宣子之適楚也, 楚人弗逆, 公子棄疾及晉竟, 晉侯將亦弗逆, 叔向曰, 楚辟, 我衷, 若何效辟, 詩曰: 「爾之教矣, 民胥效矣。」 從我而已, 焉用效人之辟。—— 晉侯說, 及逆之。《春秋左傳》, 앞의 책, 6-752下.

이 시는 宋나라 襄公이 그의 祖上 湯임금을 祭祀지내는 詩인데, 《國語》에서는 公孫固가 宋 襄公에게 重耳를 禮로써 待遇할 것을 勸誘한 것이다. 이에 宋 襄公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重耳에게 80匹의 말을 선사하였다¹⁸⁾.

《春秋左傳》 卷七 僖公 二十二年 周나라의 大夫인 富辰이 襄王에게 아뢰어 국외로 쫓겨나가 있는 大叔을 불러들이기를 간청하면서, 〈小雅·正月〉篇 제12장 제3,4 구를 인용해 同姓의 親戚들과 和睦하기를 勸告하고 있다.

洽比其鄰, 그의 이웃과 의좋게 친하며,
昏姻孔云, 인척들과도 아주 잘 지내거늘,

이 시는 小人들이 자기들끼리만 親하게 지내는 것을 諷刺한 것인데, 《春秋左傳》에서는 大夫 富辰이 襄王에게 국외로 쫓겨나가 있는 大叔을 불러들여, 형제 친척 간에 和睦할 것을 말한 것이다. 이에 天子는 좋아하면서 王子 帶를 齊나라로부터 京師로 돌아오게 하였다.¹⁹⁾

IV. 結論

수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즉 작품의 수용과 영향은 수용자의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런 까닭으로 先秦諸家は 그들이 처한 狀況에 따라,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意圖에 맞게 《詩經》의 詩句를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先秦諸家は 그들이 추구하는 目的에 따라 《詩經》의 詩句를 자유자재로 引用하고 있었다.

《詩經》을 引用함에는 반드시 《詩經》의 본뜻으로만 引用한 것이 아니라 인용하는 사람의 狀況이나 목적에 맞게 自由自在로 《詩經》을 引用하고 있다.

先秦諸家は 그들이 처한 狀況에 따라,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目的을 위해 《詩經》의 詩句를 引用하면서 다양한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18) 襄公從之, 贈以馬二十乘. 《國語》, 欽定四庫全書, 臺灣 中華書局, 1985年, 406-100下.

19) 富辰言於王曰: 請召大叔. 詩曰: 「協比其鄰, 昏姻孔云.」 吾兄弟之不協, 焉能怨諸侯之不睦. 王說. 王子帶自齊復歸于京師, 王召之也. 《春秋左傳》, 앞의 책, 6-247下.

先秦諸家は 《詩經》의 詩句를 引用하면서 詩篇의 原義를 引用하기도 하고, 詩篇의 뜻을 확대 해석하여 引用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詩句의 뜻만을 引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詩를 자신의 의도대로 다른 意味로 引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當時 “賦詩斷章”, “斷章取義”의 成語가 생겨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先秦諸家の 典籍에는 《詩經》의 詩句를 引用하여 어떤 目的에 사용한 후, 그 目的이 達成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곧 當時 《詩經》 引用이 流行하게 된 理由를 克明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詩經》의 詩句를 引用하여 그들의 目的이 達成되었다면 자연히 더 많이 그들의 目的을 위해 《詩經》의 詩句를 引用토록 조장하는 效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十三經注疏》，臺灣 藝文印書館，1993年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1996年
 《欽定四庫全書》卷406，臺灣 中華書局，1985年
 孔穎達 疏 《毛詩正義》，臺灣 中華書局，民國57年
 毛亨 傳 鄭玄 箋 《毛詩鄭箋》 臺灣 中華書局 民國72年
 朱熹 《詩集傳》 臺灣 學生書局，民國59年
 楊合鳴 《詩經句法研究》，武漢大學出版社，1993年
 向熹 《詩經語言研究》，四川人民出版社，1987年
 夏傳才 《詩經語言藝術》，語文出版社，1985年
 袁梅 《詩經譯注》，齊魯書社，1985年
 張少康 《先秦諸子的文藝觀》，上海文藝出版社，1984年
 劉煥輝 《修辭學綱要》，百花洲文藝出版社，1991年
 袁暉·宗廷虎 《漢語修辭學史》，山西人民出版社，1995年
 趙明 主編 《先秦大文學史》，吉林大學出版社，1993年
 徐中舒 《先秦史論稿》，巴蜀書社，1992年
 張傳璽 主編 《中國古代史綱》 北京大學出版社 1992年
 鄭子瑜 〈論先秦諸子的修辭技巧〉，社會科學戰線 1980年4期
 何九盈 〈先秦諸子的語言理論〉，北京大學學報 1982年第5期
 李博 〈雜談先秦諸子散文引喻明理的手法〉，河南師大學報 1982年第1期
 金化倫 〈先秦諸子文章的論辯藝術〉，廣西師院學報 1991年第2期
 朴均雨 〈先秦諸子的語言觀念〉，國外社會科學 1995年第7期
 董洪利 〈孟子散文的藝術特色〉，新聞戰線 1986年第2期

顏建華 〈孟子的美學思想與散文特色〉，貴州師範大學學報 1997年第2期

【中文提要】

《詩經》是中國韻文之祖，自《詩經》以後，歷代文學不受《詩經》之灌溉啓發，進而成熟茁壯。

先秦諸家的作品中引用《詩經》詩句的例子很多，對於當時的人們，《詩經》具有何等意義，爲什麼如此頻繁地引用《詩經》，帶着這種疑問，爲了揭開這一疑問，開始了本次研究。

本論文的目的是通過這一研究弄清楚當時的人們是怎樣接受《詩經》的，而且弄清楚在什麼樣的狀況下，爲何目的，以何等方式引用《詩經》的。

尤其是，調查研究引用《詩經》的特色。本論文將研究了斷章取義·引用效果和同一詩句的變化運用，也就是研究了引用詩句的意圖和引用詩句而產生的效果及同一詩句在不同的典籍中是怎樣變化使用的。

通過研究可得到如下結論。

第一，先秦諸家是根據所處的狀況和目的，按照自己的意圖引用《詩經》詩句的。

第二，先秦諸家在引用《詩經》的詩句方面，有的引用詩篇的原義，有的則擴大引用詩篇的原義，根據情況有時引用詩句的意義，有的則根據自己的意圖進行具有其他意味的引用。

從先秦諸家的文章中我們可以看出，他們根據自己的目的引用《詩經》詩句之後其目的也確實達到了，這克明地說明當時爲什麼流行引用《詩經》的理由。

【주제어】

詩經，先秦諸家，引用，斷章取義